

전북교육청 “올 수능 만반의 준비 끝”

도내 66개 시험장 운영... 수험생 총 1만7937명 응시

4100명 인력 투입... 12일 수험생 · 감독관 예비소집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안정적인 수능 운영을 위한 준비 상황 브리핑을 갖고, 도내 수험생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오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수험생 기준) 실시된다. 시험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66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응시생은 전년보다

896명 늘어난 1만7,937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험실 수험생 배치 기준이 기존 24명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8명으로 조정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에 따라 확진자도 일반시험실에서 다른 수험생과 함께 응시한다. 다만, 확진자나 호흡기계통의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수능 시험장을 확정, 지난 8월부터 방송시설을 포함

한 전 시험장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전기·가스 안전 점검을 비롯해 수능 전 마지막 종합 점검을 통해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수능 주간에는 본청과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각 시험장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과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는 수능 다음날인 14일까지 수능관리본부를 운영한다. 시험 운영을 위한 4,100명의 인력 파견 계획도 수립했다. 수능 운영 및 시험실 감독관 약 3,700명, 파견감독관 66명, 경찰관 277명, 소방안전관리관 67명 등이 참여해 시험 관리 및 감독, 문답지 호송, 시험장 보안, 수험생 안전 등 시험 운영 전반의 필수 역할을 맡는다. 또 장애·질병 등으로 시험편의가 필요한 수험생을 위한 개인시험실이 운영된다. 모든 시험장에는 보건실과 예비시험실을 설치하고, 보건교사와 소방안전관리관, 경찰관 등을 배치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수능 당일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교통 통제 및 시험장 주변 소음,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 대비한다. 한편 예비소집은 11월 12일 실시된다.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교부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도내 모든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유의해 당일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학교급식 한우 맛 체험’ 기증서 전달식이 열렸다.

한우 소비 촉진·식생활 교육 일환

한우협회 전북지부, 학교급식 한우 맛 체험 기증서 전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5층 접견실에서 ‘학교급식 한우 맛 체험’ 기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한우 소비 촉진 및 미래세대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도내 100개교 1만2,835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우 1,735kg(약 5,90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정운섭 지회장은 “학교급식을 통한 한우 나눔으로 미래 소비 주체

인 청소년들이 한우의 맛과 영양을 직접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우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소년들이 학교급식에서 우리 한우의 맛과 품질을 체험함으로써 국산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배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고, 푸른 잔디로 ‘수능대박’ 응원

를 ‘수능 대박’ 글자에 맞춰 깎아 초대형 응원 문구를 제작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여자고등학교가 이색적인 응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여고는 운동장 잔디를 ‘수능 대박’ 글자에 맞춰 깎아 초대형 응원 문구를 제작했다.

/장은성 기자

/장은성 기자

RCA · TSI 지수 복합 적용, 개도국 농산물 무역모델 제시

전북대 황성혁 교수팀, 국제농업개발학회 ‘우수농업상’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황성혁 교수와 첸 소크한(CHEN Sokhan) 박사과정생이 최근 열린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에 게재된 ‘RCA와 TSI 지수를 이용한 캄보디아 천연고무 수출경쟁력 분석’으로 국제농업 개발 연구의 실증적 기여와 학문적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의 무역 데이터를 분석해 캄보디아 천연고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계량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RCA(현시비교우위지수)와 TSI(무역특화지수)를 복합적으로 적용, 개도국 농산물의 무역경쟁력 평가를 위한 분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성혁 교수(농경제유통학부)는 “이번 연구는 캄보디아 농업의 수출경쟁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개발도상국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첸 소크한 학생은 “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학과의 지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물류무역학과

안양세관 등 현장 탐방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물류무역학과 학생 40여 명이 최근 의왕ICD, 안양세관, 한진보세창고 등 산업 현장을 탐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물류·무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물류 및 무역 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진로 비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견학에서는 의왕ICD, 안양세관, 한진보세창고 등 물류 및 무역 현장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물류 및 무역 산업의 역동성과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체험하며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무 업무와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노인건강

운동지도사 1급’ 전원 취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노인건강운동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을 통해 참가자 20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년층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변화를 이해하고, 전신적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 실버플러스(Silver+) 평생학습’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이 과정은 평생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생활 속 건강체조 △자립훈련 △소통활동 등 참여형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특히 지역 주민 20명이 모두 자격증을 취득했다. 수료생들은 향후 치매 예방운동이나 실버 레크리에이션 강의 등 현장에서 건강증진 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기존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김은성 평생교육원장은 “참여 교육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신체적 활력과 사회적 교류를 되찾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마지막으로 유 권한대행은 “연말을 맞아 각 사업별 성과 평가와 공유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데, 이는 내년도 정책 설계를 위한 밑거름”이라며 “성과는 더 단단히 다지고, 미비된 부분은 보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도내 직업계고

학생 대상 면접 대비 특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대비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인 필기시험 합격자 16명을 대상으로 오는 4일과 11일, 18일, 12월 2일 총 4회에 걸쳐 전주비전대학교 행정복지사에서 진행된다.

올해 필기시험에는 도내 7개교 19명이 응시해 6개교 16명이 합격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10명, 공업(기계·전자) 2명, 회계 1명, 세무 1명, 관세 1명, 보건 1명 등이다.

면접특강은 △공무원 면접 전형 이해 △개별면접과제 작성 및 첨삭 △5분 주제발표 실습 △실전 모의면접 및 피드백 등으로 참가자 개개인의 역량에 맞춘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시되는 실전 모의면접과 발표 코칭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가직 지역인재 면접시험은 오는 12월 4~6일까지로 합격자는 12월 24일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는 6개월 간의 수습근무와 임용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최근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고, 향후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학생 생활 적응 지원 · 대학 생활 공유

전북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과 간담회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고, 향후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대 국제협력과 관계자와 재학 중인 GKS 장학생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학업과 기숙사, 장학제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또한 각자의 모국과 전북대 생활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학생으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대 국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향후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최근 휘트니스테크놀로지스와 함께 AI 리더러시 증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미래 인재 양성 ‘맞손’

전주대, 휘트니스테크놀로지스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 HUSS사업단)은 최근 휘트니스테크놀로지스(대표 이세영)와 함께 AI 리더러시 증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휘트니스테크놀로지스는 2021년에 설립된 한국의 생성형 AI 스타트업으로, ‘휘트니스’ AI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휘트니스 AI는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다.

3일 전주대에 따르면 진리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용욱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연계형 AI 융합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AI 기반 지역 가치 창출 프로젝트 공동 수행 △학생 대상 AI 프로젝트 실습 및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욱 HUSS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AI 교육을 통해 대학생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리더러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AI 기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위한 교육과정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